

## Merck, 의약사업부에 i-Pad 지원



독일 Merck가 의약 사업의 마케팅 및 영업능력 강화에 나섰다.

Merck는 한국지사인 머크세로노 의약사업부가 제약기업 최초로 마케팅과 영업팀을 위해 i-Pad를 지급했다고 1월20일 발표했다.

머크세로노는 전문 영업사원이 최신 의약정보를 최신 디바이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토록 하기 위해 i-Pad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1/01/20>